교불련, '韓日불교 수행법' 면면 조명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 개막
7월 2일까지 한일 명상 등 살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열린 개막식 모습.

불교계 지성인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의 전통 수행법을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 개막식을 봉행했다. 7월 2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의 명상과 한·일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법'을 대주제로 삼아 간화선을 비롯한 양국의 다채로운 수행 전통을 조명했다.

먼저 이날 대회를 시작하며 월암 스님(전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와 한국불교 명상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깨달음을 목적이자 법칙으로 삼는 '오위칙(悟位則)'을 역설했다.

월암 스님은 "오늘날 이를 다시 대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의 깊은 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행의 본질 회복을 당부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한국불교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명상의 시대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학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면 수행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선명상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본래의 밝은 성품을 회복하는 생활 속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화선을 포함해 대중성을 갖춘 한국의 선명상이 확산하는 흐름에 주목해 그 국제화 가능성을 심도 있게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신뇨엔 정경 국원은 환영사를 통해 "창종 9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대회를 함께 열게 되어 감사하다"며 "동아시아 불교라는 한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두 갈래의 물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함께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이어지는 학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수행법과 일본 신뇨엔의 전통 명상법을 비교 및 연구하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양국의 다채로운 명상법을 몸소 체험하는 '명상 실참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행의 깊이를 더했다.

아울러 미래 불교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청년 포교를 위해 '대학생 전법을 위한 특별 세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교수 불자들은 지성과 수행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명상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3일간의 일정을 회향했다.

범어사·내소사 대웅전 벽화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 공고
범어사 벽화 삼불신앙 구현
내소사 벽화 의겸계 조성해
흥국사 제석천도 등도 함께

조선시대 '삼불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내부 동·서쪽 벽에 그려진 불화 4점으로, 한 공간에 '삼불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중앙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주불단 뒷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동쪽 벽에는 동방 유리광정토를 주관하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가, 서쪽 벽에는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삼존도 벽화가 배치돼 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의 양 옆문의 위쪽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벽화,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신앙적 배경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벽화는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공간적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한 공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면서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 집단의 활동과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주불전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샛기둥을 설치해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흙을 발라 화면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렸다.

이 벽화의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하며, 백의(白衣)를 걸친 백의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 암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음보살은 유희좌(遊戱坐)로 앉아 있다. 관음보살 머리의 보관 중앙에는 태극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보관의 태극문은 의겸(義謙) 일파가 제작한 개암사 괘불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이 작품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는 대웅전에 모셔진 중단탱화로 제석천도와 천룡도가 결합돼 하나의 화면에 함께 그려지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전, 각각의 화면으로 제작된 2폭의 불화가 1쌍을 이루어 일괄로 전하는 사례이다.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은 1605년 위봉사 북암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사보살상(四菩薩像) 가운데 두 점으로 현재는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돼 있다. 1989년 도난됐다가 2016년 환수된 문화유산으로, 도난 과정에서 유실된 보관 및 지물은 근래에 조성하여 함께 모셨다.

한편, 범어사는 대웅전 벽화 보물 지정을 기념해 7월 12일 오전 10시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중 아미타여래삼존도. 조선시대 '삼불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벽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⑰ 공덕천 흑암천(功德天 黑暗天)

'키치'의 어리석음

功德天 黑暗天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늦은 저녁, 한 여인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나는 공덕천입니다. 복과 건강, 화목과 풍요를 가져다주려고 왔습니다."

주인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려 했다. 그때 공덕천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내 동생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흑암천입니다. 근심과 질병, 가난과 슬픔을 맡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자 공덕천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를 맞으려면 이 아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따로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는 울림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공덕천만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꽃이 피면 지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따른다. 건강은 병의 가능성을 품고 있고, 기쁨에는 이미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삶은 언제나 둘을 함께 데려온다.

공덕천과 흑암천은 서로 등을 돌린 존재가 아니다. 한 생명의 앞면과 뒷면이며, 한 길을 함께 걷는 필연의 동행이다. 공덕천만 받아들이고 흑암천을 밀어내려는 마음은 결국 삶 자체를 절반만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를 해석하며 이러한 삶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온갖 질병과 재앙이 상자 밖으로 쏟아져 나온 뒤,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불행 속에 남겨진 마지막 축복으로 여긴다.

그러나 니체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그에게 상자 속 희망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괴로움을 끝없이 연장시키는 가장 교묘한 재앙이었다. 흑암천이라는 삶의 엄연한 일부를 지워 버리려는 맹목적인 희망은 결국 인간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달콤한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밀란 쿤데라의 문학적 사유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는 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 존재의 모순과 불편한 진실을 지워버린 채 아름답고 숭고한 것만 남기려는 태도, 그는 그것을 '키치'라고 불렀다.

키치는 현실의 절반만 사랑하려는 태도다. 공덕천만 맞아들이고 흑암천은 문밖에 세워 두려는 중생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 행복이라는 절반의 환상만 붙들고 괴로움이라는 절반의 진실을 밀어낼수록 삶은 점점 낯설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환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는 사건이 사라진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실상을 분명히 보라고 가르치셨다. 오는 것을 오게 하고, 가는 것을 가게 하며,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는 여여(如如)의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두 얼굴을 함께 끌어안고, 그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만난다. 〈화순 불암사 주지〉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